

이탈리아의 포고령 「비닐주머니 사용금지」

편집부

지구는 한정된 면적이지만, 산업화의 발달로 방출되는 쓰레기의 양이 엄청나게 늘어나 폐기물 매립문제는 비단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세계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여기에 1986년 10월 이탈리아의 한 소읍장이 취한 조치로 인해, 1987년 10월 쓰레기처리에 관한 법률이 의회에서 통과되는 등 전국민의 관심이 환경 정화에 쏟게한 성과를 거둔 것을 소개하고자 한다.

1986년 10월, 파두아 인근에 있는 인구 1만 3천의 소도시 카도네게에서 비닐주머니와 플라스틱병들의 사용을 금지한다는 것이었다. 이 포고령은 합성수지 쓰레기의 산더미에 묻혀가고 있는 이탈리아를 구출하기 위해 전개되고 있는 “쇼핑백전쟁”의 시작을 알리는 제 1탄이었다. 이탈리아는 세계최대의 플라스틱 생산국 가운데 하나로 이나라가 생산하는 연간 320만 t의 플라스틱 가운데 100만 t 이상 - 전체의 40% - 이 상품포장에 사용된다. 매년 이탈리아인들은 90억개의 비닐쇼핑백을 사용하며 PVC (폴리염화비닐)나 PET (폴리에스테르)로 만든 병 10억개에 든 음료수와 미네랄워터를 소비한다. 또, 고기, 치즈 및 야채의 포장에도 약 4만 5천 t의 투명 플라스틱 필름이 쓰이며, 상품포장시 빈공간을 채우는데 폴리스티렌의 사용이 증가되고 있고 플라스틱으로 된 요쿠르트, 치즈 및 아이스크림 용기도 마찬가지로 늘어나고 있고 치

약까지도 플라스틱 튜브에 담겨 나오고 있다.

그것이 포장, 용기 또는 휴대의 어느 용도든 이들 플라스틱은 “버려지게” 되어 있다.

그러나 “어디에” 버릴 것인가?

이탈리아의 8100개 읍과 마을 가운데 쓰레기 수거를 실시하는 곳은 반도 안된다. 또 이나라의 9천여개 쓰레기장중에서 2백개만이 관거되고 있을뿐 나머지는 단순히 쓰레기가 버려지는 특정장소에 불과하다. 이탈리아인들은 매년 100만 t 이상의 플라스틱 쓰레기를 버린다. 그리고 그양은 점점 늘어나고 있다.

카도네게의 읍장은 자신이 사는 읍과 주변의 시즌이 두터운 플라스틱더미로 덮이는 것을 걱정하던중 포고령을 작성·공포했다. 한 작은 읍의 읍장이 90만개의 비닐주머니에 맞서 싸움을 시작한 것이다.

이탈리아에서 플라스틱 공해에 시달리지 않은 사람은 없다. 바다에서도 내륙에서도 플라스틱의 폐해는 광범위하다. 생태학자들은 이탈리아를 온통 뒤덮고 있는 합성수지 쓰레기 더미가 이산화탄소와 햇빛으로부터 탄수화물과 산소를 만들어내는 식물의 광합성과정에 영향을 미칠지도 모른다고 우려하고 있다.

그러나 플라스틱 쓰레기는 물속에서 더욱 큰 문제를 일으킨다.

1983년 죽은 고래 한마리가 산레모의 해변으로 밀려 올라왔는데, 해부해본 결과, 그 뱃속이

비닐주머니로 가득차 있었다. 수십마리의 거북과 돌고래들이 또한 비닐주머니를 해파리나 오징어 또는 물고기로 잘못보고 삼켰다가 질식사 죽었다.

'87년 환경보호단체인 「마레비보」는 이탈리아의 전해안에서 7일간에 걸쳐 “공해 비닐주머니 뉘기” 운동을 벌였다. 이 운동에서 물에 젖어 폴리에틸렌 2천kg을 건져냈다.

점차로 이탈리아의 내륙과 작은섬 마을에서도 카도네계의 선례를 따르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슈퍼마켓과 점포에서는 폴리에틸렌주머니의 대용품으로 갈색종이봉지를 제공하기 시작했다.

한편, 플라스틱공업협회는 카도네계 등 ‘플라스틱을 추방한’ 읍장들과 법정투쟁을 벌이느라 바빴다. 협회측의 변호사들은 건강상의 “비상상태”가 실제로 존재하지 않기때문에 비닐주머니의 금지시킬 권리가 읍장들에게 없다고 주장했다.

이 주장에도 일리는 있다. 비닐주머니 매상고만 해도 연간 1,750억원이나 되며 270개 회사의 1만 2천여 종업원들이 2생산에 종사하고 있기 때문이다. 플라스틱 포장산업은 연간 약 3조천억원 규모이며 고용인원도 6만명에 이르고 있다. 플라스틱 산업의 규모와 그에 딸린 일자리 수를 감안할때, 단순히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을 금지시키는 방법으로 공해문제를 해결하기를 바라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포고령을 선포한 읍장들조차도 금지시키는 방법이 아니라 문제를 제기해서 해결의 실마리를 찾자는 의도였다. 이런 측면에서 그들은 성공을 거둔 것이다.

생산자, 소비자, 환경론자 및 과학자들 사이의 잇단 논란을 통해 전국적인 정화계획의 윤곽이 드러나기 시작한 것이다.

어느 한 단체에게만 플라스틱 공해의 책임을 지울수 없다는 것은 분명하다. 소비자, 생산자, 정부가 모두 책임을 지고 정화를 도와야 한다.

플라스틱 쓰레기를 정화하는 것은 소각하는 방법과 재생하는 방법이 있는데 소각할때의 열을 에너지로 환원할수 있어 자원절약의 이득을

볼수도 있다.

1989년 6월 파르마시의 쓰레기수거부는 플라스틱 재생을 위해 주민들에게 사용한 비닐주머니와 플라스틱용기를 이도시의 곳곳에 위치한 쓰레기장에 버리도록 권장하는 운동을 벌이기 시작했다. 이운동엔 이탈리아 환경보호연맹과 플라스틱 재생의 기술적 측면을 맡게될 몰트예코사(업체)가 공동으로 후원했다.

이런 전국적인 흐름에 따라 1987년 10월29일 쓰레기처리에 관한 법률이 의회에서 통과되었다.



그 제 6 조에는 1989년 1월 1일 부터는 환경을 오염시키거나 국민보건을 해치지않고 비닐주머니, 플라스틱 포장용품 및 병들을 처리할수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조항은 구체적인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않아 애매하므로 명확한 처리규칙 제시가 요망되기는 하나 이 법률이 통과되었다는 자체가 갖는 의미는 클것이다.

우리나라에도 이탈리아와 같은 민간차원적인 정화운동이 크게 일어나, 환경보전운동의 일대 전환이 있어야 할 것이다.

한편, 우리생활속에서 비닐주머니 사용을 쉽게 줄일수있는 방법을 알아보고 실천하도록 노력해보자. 방법은 다음과 같다.

- ◎ 쇼핑을 할때 장바구니나 그물바구니를 사용한다.
- ◎ 가게에서는 가능하면 갈색종이봉지를 사용한다.
- ◎ 되도록 봉지가 필요없는 단일물품 쇼핑을 한다.
- ◎ 비닐봉지나 플라스틱병들을 해변이나 한적한 시골에 버리지 않는다. *